



Newsletter

2024년 / 1월 3주차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1월 15일(월) ~ 21일(일): 기부금 연말정산 작업
- 1월 16일(화): 사무국 주간회의

■ 연구원 소식

<기부금 영수증 발급 2023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지난 한해 후원과 참여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즐겁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3년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직접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개시: 2024년1월 22일부터

기부금 합산기간: 2023년1월1일~2023년12월31일

■ 역사 속의 오늘

늦봄, 하늘로 가다- 1994. 1. 18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라 이야기되는 한반도의 두 나라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통일의 문턱까지 가기도 하고 철천지 원수가 되어 서로의 가슴에 총구를 겨누기도 한다. 어언 71년째, 권력의 키를쥔 위정자들의 놀음에 무도(無道)한 인민(人民)으로 밀려난 이들은 원수였다가 한핏줄임을 반복하는 역사의 희비극을 수놓아가고 있다.

이런 한반도 분단의 역사에 우뚝 선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늦봄이다. 그는 스스로를 늦봄이라 불렀다. 그런데 이 봄은 봄(春)이 아니라 봄(視)였다. 즉 늦게 눈을 뜨고 늦게 보았다는 뜻으로 일종의 자책의 의미가 담긴 일컬음이었다.

한국에서 손꼽히는 구약학자였던 그는 강단의 신학자였고, 성서 번역가였다. 히브리 민족의 연원을 하나의 혈연공동체가 아닌 하층 집단의 연맹을 일컫는 '하비루'(천민, 노예, 강도 등의 뜻)로 보았던 그는 구약성서를 관통하는 민중과 지배의 역사, 압제와 저항, 폭군과 예언자의 역사를 통해 '민중'의 중요성을 갈파하고 실천을 통해 그를 선언했다.

절친한 친구 장준하의 의혹 넘치는 죽음을 계기로 그는 얌전한 목사, 책상머리의 구약성서 번역자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를 향해 분노를 내지르고 새로운 세상의 빛을 뿌리는 예언자로 나선다. 내 겨레에게서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이들을 향하여 포효했고 못된 놈들에게 등쳐 먹히는 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절규하는 맹렬한 시인으로 내닫는다. 늦바람만 무서운 게 아니라 늦봄도 무서웠다. 1976년 "늦게 세상을 본" 이후 그가 죽은 1994년까지의 18년 동안 그는 11년이 넘도록 감옥에 있었다. 야곱의 돌베개 따위는 그의 고행에 비하면 일도 아니었고, 엘리야가 잡아먹은 메뚜기도 11년이 그의 입에 넣어야 했던 관식보다 맛이 달았을 것이다.

그는 냉철한 전략가가 아닌 열정적인 시인이었다. 강만길 선생께서 "천의무봉"(天衣無縫)이라 표현했던 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심성을 지녔던 그는 사람들의 상상의 저편을 넘어서는 과감한 행동을 종종 선보였다. 1989년 봄의 북한 방문은 그 대표이자 절정이었다.

1994년 1월 18일 늦봄이 죽을 때까지 맑게 빛났던 눈을 감았다.

"우리 지친 어깨 일으켜... 부활의 언덕을 오르자"는 다짐의 노래 속에 그를 보낸 지 22년. 한반도의 하늘은 여전히 흑빛이다.

그는 냉철한 전략가가 아닌 열정적인 시인이었다. 강만길 선생께서 "천의무봉"(天衣無縫)이라 표현했던 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심성을 지녔던 그는 사람들의 상상의 저편을 넘어서는 과감한 행동을 종종 선보였다. 1989년 봄의 북한 방문은 그 대표이자 절정이었다.

1994년 1월 18일 늦봄이 죽을 때까지 맑게 빛났던 눈을 감았다.

"우리 지친 어깨 일으켜... 부활의 언덕을 오르자"는 다짐의 노래 속에 그를 보낸 지 30년. 한반도의 하늘은 여전히 흑빛이다.